

# 충북도, 2019년 광역치매센터 평가 전국 1위

대전 2위·경북 3위... 10개 분야 37개 지표 전 분야 높은 점수  
특히 특화사업 연구보고 항목서 평균 71점보다 높은 91점 획득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는 지난 10일 '2019년 치매관리사업 광역치매센터 평가'에서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사업 운영효과 제고를 위해 매년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치매사업 등에 대해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에 대해 '19년 사업 실적과 '20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충청북도가 1위, 대전과 경북이 각각 2, 3위를 뒤를 이었다.

평가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가치매관리사업, 지역치매관리사업 2개 항목에 걸쳐 총 10개 분야 37개 지표에 대해 평가

가 이루어졌고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중 특화사업 연구보고 항목에서 전국 광역치매센터의 단일 항목 평균 점수 71점인 것에 비해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91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여 충청북도의 치매관리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치매안심센터가 치매로부터 더 자유로운 충청북도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얻은 성과라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서도 충청북도의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발전하는 치매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2013년부터 충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김시경)을 포함한 2개팀과 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 치매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지원, 치매관리 연구 및 조사, 시군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도 치매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재산기준 상향 등 생계곤란 위기가구 대상 지원기준 완화  
예산 35억원 추가 확보로 총 106억원... 위기상황 적극 대처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35억원을 추가 확보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지원대상 재산기준을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농어촌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향했고,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제한을 폐지(단,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당초 7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35억원을 추가 확보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적

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기상황에 따라 4인기준 생계비 월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실제 등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충북도, 선제적 대응으로 고용안정망 강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추진단  
11일 현판제막식 등 사무실 개소식



11일 청주테크노파크 6타워에서 열린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단 사무실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충북도는 11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사무실의 개소식을 청주테크노 S타워에서 개최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월 지역 일자리 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충북도가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의 강점을 가진 기술을 활용해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실직·퇴직자가 신산업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의 성공적 산업전환을 모델로 한 '충북형 팀워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제출하여 선정됐다.

향후 5년간 도내 위기가 예상되는 기업의 일자리 선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409억원(국비 347, 지방비 62)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장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차천수 청주대학교 총장 및 충북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현판제막식과

추진단 시설투어, 추진경과 보고와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1단, 1센터, 6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인력구성을 완료하였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으로 일자리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3대 전략사업 및 6개 수행과제 이행할 계획으로 이·전직 근로자

들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와 신성장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김장희 행정부지사는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계기로 충북의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향후 5년간 4,744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의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추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충북컨소시엄(충북도·청주시·진천군·음성군)과 청주상공회의소, 한국고용정보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및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충북 경제 4% 달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충북의 고용 안정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충북지부 성금 기탁

코로나19 극복 위해 2020만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충북도는 대한약사회 충북지부가 지난 27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도시사와 신태수 대한약사회 충북지부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 김경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충북지부는 1952년 약사의 권익증진과 약학 연구를 위한 설립된 단체로서 도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선골프 개최 등을 통해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시종 도시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대한약사회 충북지부가 충북도청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2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다.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이머전시 푸드팩' 지원

충주 등 충북북부 4개 지역 수해 이재민 1200명에 긴급 전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4일 충북광역푸드뱅크지원센터(이하 충북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충북북부 4개지역(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

양군)에 전국푸드뱅크의 지원을 받아 긴급 재난지원물품인 이머전시 푸드팩 1200세트를 지원했다.

충북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지원된 이머전시 푸드팩은 각 시·군 지자체

와 협조하여 충북북부 4개지역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폭우로 인해 홍수·산사태 등 주택침수·파손을 입은 이재민 1,200명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였다.

이머전시 푸드팩에는 긴급상황에서도 즉시 먹을 수 있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식품(생수·라면·쌀·통조림 등 식사대용품)과 개인 위생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있다.

김영석 회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피

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물품이 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머전시 푸드팩 지원사업은 현재 전국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평상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들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다가 재해·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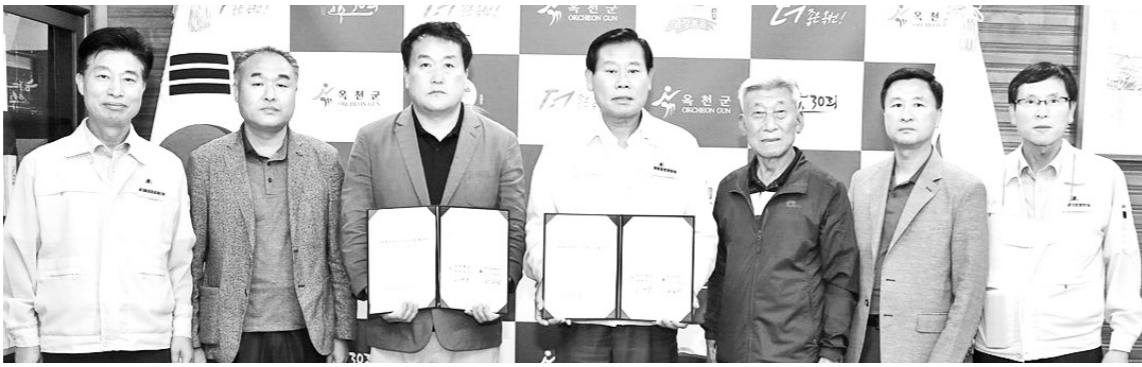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 옥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탄생

군-지엘리베라움 아파트 협약  
1층 126㎡ 유휴공간 무상임대  
만 6~12세 숙제·놀이 등 서비스



24일 김재중 옥천군수와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다함께 돌봄센터' 무상임대 협약을 하고 있다.

옥천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이 생긴다.  
옥천군은 7월 24일 군청 군수실에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와 '다함께 돌봄센터 무상임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재중 옥천군수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노인회장, 마을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들이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군은 리모델링, 기자재 투입, 유지보수 등 사용건물을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102동 단지 내 1층에 장소를 제공받아 126㎡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

이다.  
군은 리모델링 설계를 시작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위탁기관 모집과 선정, 기자재 구매, 센터 홍보 등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연 주민복지과장은 "양육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까지 10개소(정주1, 충주2, 제천4, 진천2, 괴산1)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괴산군 첫 금연 공동주택 '퀸 하우스' 탄생

계도기간 거쳐 오는 12월 24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괴산군이 첫 금연 공동주택을 지정했다.  
괴산군 보건소는 괴산읍에 위치한 '퀸 하우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 도면 등의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 제1호 금연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3일까지 홍보 및 계

도 기간을 가진 뒤, 12월 24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괴산군 보건소는 6개월간 현판, 현수막, 안내판 등으로 충분히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호 금연 공동주택이 탄생해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돕고자 괴산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연합회 MOU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아동·청소년 돕기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인, 이하 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괴산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손을 잡았다.  
괴산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사리지역아동센터, 괴산지역아동센터, 국경없는아동교실, 목동중앙지역아동센터, 수달지역아동센터, 이화령지역아동센터, 괴

산 장영공부방, 청천지역아동센터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6일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괴산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예방 교육,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 척도지를 통한 고위험군 선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를 도와 문제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부모들을 위한 정신건강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인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은 괴산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정신건강상담과 치료, 스마트폰 의존예방교육 등을 제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옥천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자 후유증 최소화·보호

옥천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옥천군이 피해자에게 치료보

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

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옥천군에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군에 의료비 보전을 청구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영동경찰서를 찾아 치매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회감지기 58대를 전달했다.

# 영동 치매노인·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지역사회보장협의, 배회감지기 58대 영동경찰서에 전달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서정길)는 11일 치매노

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58대를 영

동경찰서에 전달했다.  
배회감지기는 스마트 시계형으로 실종 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기기이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고통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고민하다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전달된 배회감지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등 독거노인 과 저소득 주민에게 시범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서정길 위원장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성원의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경찰서 윤정근 서장은 "군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따뜻한 지원을 한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고, 영동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에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영동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생활지원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대상 확대... 1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동군은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개정, 결혼이민

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0만원의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결혼이민자는 161명이다.  
영주권자는 49명으로 총 210

명에게 지원금을 준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체류지(거소)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분증 내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받는다.  
군은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학생, 대학생들에게 지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유원대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까지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학생들은 3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군은 65세이상 지역 노인들에게 급식비(10만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3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50만원),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10만원)을 지급해 주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고 있다.

# 1회 증평군 아동정책 혁신 창안대회 개최

15개 팀 중 최종 6개 팀 선정... 향후 정책 반영

증평군은 18일 증평군립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제1회 증평군 아동정책 혁신 창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군이 지난 달 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모집한 참가팀 15개 팀들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의 진정

성과 실효성, 지속성, 논리성 등 문제 발견에 중점을 둔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정했다.  
또한 군은 지난 11일 워크숍을 통해 이틀 본선 진출팀들이 각자 선택한 문제들을 정책화해 보는 과정을 진행했다.  
창안대회 참가팀은 평소 군에 제안하고 싶었던 아동정책을 PPT, 동영상, 상황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 발표 후에는 제안내용 중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최종 심사를 거쳐 6팀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부서별로 실현 여부와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성열 군수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군정에 실현하며,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행정이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아동친화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충북도 “소규모 업체 근로자 건강 책임”

# 충북도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지난달 30일 오창 과학산단에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무료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지원

충북도는 7월 30일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미래누리터(오창과학산단)에서 충북 지역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 고용노동부 김동욱 산업보건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소사와 격려사, 축사

에 이어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보고, 제막식,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충북은 높은 산업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충북도는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등 관

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사업 수행 희망 기관을 발굴하고 청주시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전개해 2020년 신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지역으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는 (사)대한산업보건협회가 수탁·운영하며 의사·간호사·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5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과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해 직업병 예방 상담, 뇌심혈관

계·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작업환경 상담은 물론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지도, 보호구 착용 지도·평가,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등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충북 근로자건강센터가 노동자가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건강행태 등 성인 1만3000여명 대상 조사 코로나19 대응 방역 준수 시행… “주민 적극 참여” 당부

충북도는 질병관리본부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만3천명(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보건소당 평균 6명)이 표본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조사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완료하였으며, 가구 방문 시 마스크 필수 착용은 물론, 조사수행 전·후 손 소독, 조사 전 대상자의 체온 재확인 및 대상자와 거리 두고 면접조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와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수준(고혈압, 당뇨병 등), 올해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142개 문항이며 결과는 내년(2021년) 3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사할 것이며,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청주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국제로타리 ‘맞손’

### 지역사회 복지증진 업무협약 나눔 인식 제고·활성화 등 기대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와 국제로타리 3740지구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홀몸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단체는 지난 7월 30일 협약식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발굴과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지원,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와 국제로타리 3740지구 관계자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홀몸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에 대한 사회적 참여 확대 및 나눔의 중요성 인식과 활성화를 위해 국제로타리 3740지구 및 청주

상당로타리클럽·청주은하수로타리클럽 등 소속 클럽은 쌀·라면·고추장·보양식 등을 지원하고, 방역에 취약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인과 봉사자를 위한 손소독제 및 마스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김승기 국제로타리 3740지구 총재는 “지역 사회의 행복을 위한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78개 클럽과 3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로타리 3740지구는 인도주의 봉사프로젝트와 해외봉사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다.



중평군노인복지관이 일자리 사업으로 여름용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에 나섰다.

## 중평군노인복지관 “수제 여름용 마스크 구매하세요”

### 노인일자리 은빛사랑채 사업단 참여… 이달 판매 시작

중평군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단 은빛사랑채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여름용 마스크를 이달부터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마스크는 여름철 착용이 용이하도록 인견, 린넨, 마 등의 원단이 사용됐으며, 필터 교환용으로 세탁 후 재

사용이 가능하다. 은빛사랑채 사업단은 13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2013년 시작한 이 사업단은 인건 소재를 활용해 이불, 의류 등을 주문 제작해 판매해 왔다. 중평군노인복지관 김용에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마스크를 많은 군민들이 사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청주시 초·중학교 학생 22명, 충북대학교 대학생 4명과 함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발대식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지난 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을 진행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아동 스스로 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변화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주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초·중학교 학생 22명과 충북대학교 대학생 4명의 멘토로 구성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

을 알렸다.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발대식과 함께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아동의 4대 권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과 함께 청주시 내 아동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은희 충북지부장은 “아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동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굿네이버스 충북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 “자녀의 본이 되는 부모 되기 도와드려요”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동환)은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충주 소재)를 시작으로 ‘찾

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충

북도 내 기관 및 기업의 직장인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운영하며 신청기관의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 내 아이 자존감 높이기, 자신 있는 부모 되기 등의 주제로 실시하며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김동환 원장은 “부모교육의 기회가 적은 직장인 부모들이 자녀와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아울러 청소년이 행복한 충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 충북보조기기센터, 정보통신보조기 임대 지원

### 도내 장애인 대상 상시 진행… 단기·장기 대여 가능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는 충북도 내 장애인·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위탁받아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무료로 임대하여 보조기기 보급 지

원 확대와 편리한 정보 생활을 지원하고자 수행한다. 임대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기 또는 장기(1년)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임대할 수 있다. 임대 품목은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학습기, 문자판독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이며 접

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상시로 진행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보조기기 임대까지 2달 정도 소요되며 현장평가를 통해 보조기기 적합성이 낮을 경우 임대가 제한될 수 있다. 임대 지원 확정시, 보조기기 별 소비자의 5%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훼손 및 고장 없이 반납할 경우 전액 환급된다. 자세한 보조기기 지원 품목 정보, 제출서류 등 신청 방법 안내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cb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 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로 구축한다

### 예술인·특수고용 등 불안정 고용계층 보험 적용범위 확대... 기초생활제도 개편·상병수당 도입도 준비 국민취업제도 신설... 고용보험 가입률 낮고 코로나19 타격 큰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디지털·그린인재 양성과 함께 고용시장 신규진입·전환 디지털화...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모색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① 예술인·특고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제도 마련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② 예술인·특고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단계적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③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2,100만 명)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다.

④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추가한다.

##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상병수당 도입 준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또한,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쉬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후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한편,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

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분들은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할 의욕과 능력은 있지만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여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한다.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①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취약계층 심층상담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한다.  
새롭게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취업애로사항 해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어디서나 1시간 내에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② 청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확대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③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제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여 금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연 1회)를 확대한다.

④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및 기업 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기업지도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그린기업들을 선 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건 분석, 고용환경 개선 및 맞춤형 인력 채용까지 패키지로 하여 지원한다.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① 안전보건 관리 체계 혁신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천대, 이동식어연기 5천대를 확충한다.  
소공인 대상으로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까지 개선한다.

② 장시간 근로개선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한다.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① 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한다.  
또한 전 산업분야에 AI DNA를 심기 위해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AI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영역별 전문인력 교육도 추진한다.

②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 명 양성  
생물소재, 녹색금융, 포스트플라스틱 등 관련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산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한다.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①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 훈련 추진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adapt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신기술 분야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 명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은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훈련제공자가 된다.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은 사전인증을 유예하여 진입을 촉진하고,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이다.

②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자체 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③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 훈련 플랫폼도 확대한다.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 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한다.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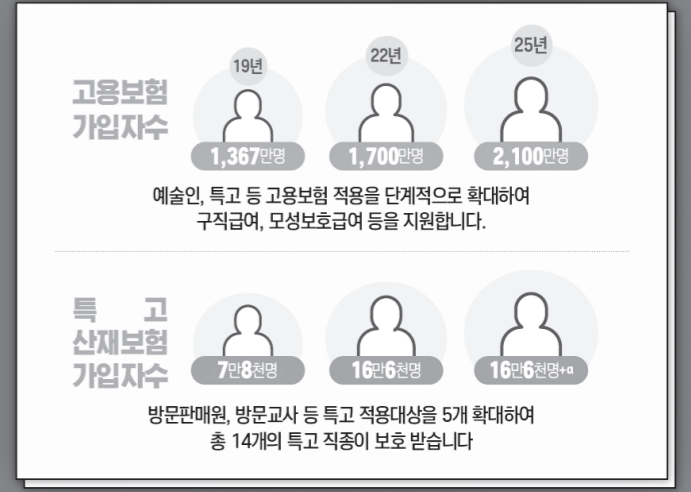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한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아울러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연간 1,000개)하여 전자 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일하고 싶다면? 보호받고 싶다면?

## 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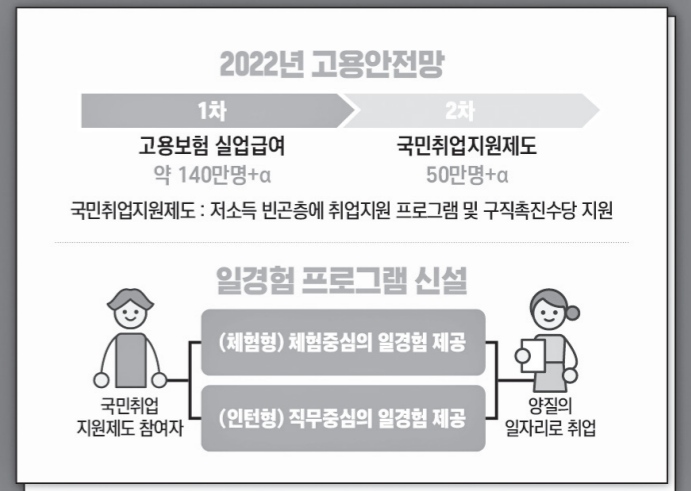
## ②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누구나 취업지원 받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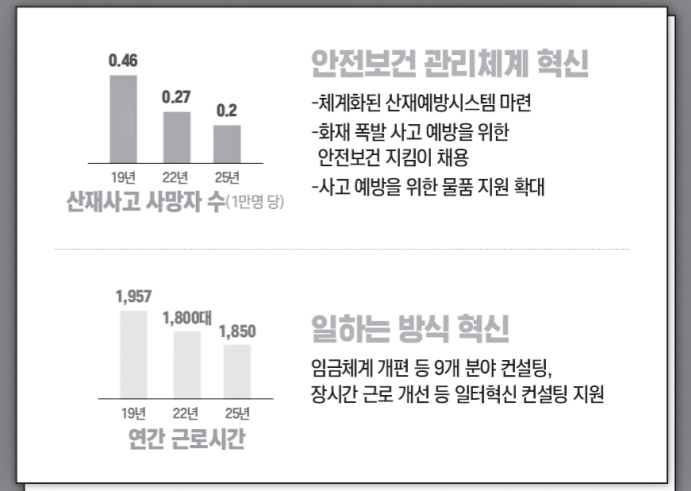
##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생애를 아울러 지원을 받도록



##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혁신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복지광장

집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 돌봄서비스 변화에 대한 바람

복지포럼

포스트코로나시대, 현안과 지역사회복지관의 과제



송 유 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코로나19로 주간보호소에 가지 못한 스물다섯살 발달장애인 아들과 60세 노모가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며 이 글을 적는다. 학교조차 가지 못한 아이는 여행용 트렁크에서 숨었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후라이팬에 지져졌다...

이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취약계층의 불안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는게 현실이다. 국내 사망자들만 보더라도 요양시설, 정신병원 입원자 등 기저질환자들의 위험도가 훨씬 높을뿐더러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이야기하는 이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마음 편히 휴직도 재택근무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우리 재가돌봄서비스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주야간보호소 등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사회적 돌봄체계는 코로나19의 창궐과 동시에 마비 상태에 이른지는 이미 오래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돌봄 체계의 마비에 따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어 위와 같은 사회문제를 속속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고, 사회복지계는 이 미증유의 사태를 그저 먼발치에서 지켜 볼 뿐이었다.

이렇게 소극적이어도 되니 싶을 만큼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현장의 대응이 아니었나 감히 생각한다.

다행히 국가는 작동하였고,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

고용유지와 소득지원에 집중되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했다. 이제 복지가 보복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더이상 돌봄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양보하고 '비접촉 보건지침'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때가 되었다. 상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의 희생에만 내맡기고 있기에 여전히 사회취약계층의 고통이 절박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이제 "집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진리가 증명되었다. "커뮤니티케어의 시대"

보건과 복지의 분절, 시설 보호의 한계를 한방에 뛰어넘는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지역화, 커뮤니티화, 공동체의 복원! "집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궁극의 국민적 동의는 그간 사회적 관습과 정서 상 적응하기 어려웠던 '커뮤니티케어'의 시대로의 대전환을 모색할 기회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증가하여 예방적 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증대로 이미 대전환을 시작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드러났듯, 위기 시 비대면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술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감염 예방수칙, 개인위생수칙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치매 문진 서비스 등이 구현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보건소 등 공공기관 긴급지원체계와의 연결하여 응급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은 이제 돌봄현장의 효율을 넘어, 국민적 필요에 의해서 안착 될 시기가 지극인 것이다.

서비스 공급 위주의 사회복지 현장을 넘어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자. 본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신상위험에 대비하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이 미증유의 사태를 통해 경험으로 통렬하게 깨닫지 아니하였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여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경제를 되살리는 방식으로서의 개발과 성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이로운 삶을 선택하는 전지구적 노력을 우리 사회복지현장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적 방역 체계는 느슨하지만 그렇게 총총히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안전한 전방을 복원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는다.



김 태 선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 당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방지와 기저질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무기한 휴관 상태에 들어갔고 복지관 운영 재개 역시 여러 이용 시설 중 가장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관중인 복지관은 직원을 제외한 이용자 및 봉사자, 주민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졌던 복지사업들도 중단되었다. 각종 주민조직 프로그램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주민들의 소리와 발걸음으로 늘 활기차고 북적였던 복지관이 고요해졌다.

지역으로 나가 주민과 기관, 단체와 함께 했던 주민조직화사업 역시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관은 위기감과 심각성을 가지고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복지서비스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되었던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는 지속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취약계층이 된 지역주민들을 발굴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 연결하고 있다.

기존 복지관 이용자들의 변화 상황을 살피고 고립감과 우울감,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 사업별로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있고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및 소독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졌다. 그 이유는 민간복지 전달체계로서 복지관이 그동안 사재관리, 서비스 제공, 주민조직화사업으로 관할지역 주민과 함께 하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촘촘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인 생명나눔 장기기증



이 춘 애
청주시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한 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아픈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뇌사 시 기증, 사망 후 기증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말기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중 기증자를 구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전업주부.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 오기 전 일상의 모습이었다.

2001년 7월 어느 날, 나는 갑작스레 만성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일상은 무너지고 생활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서서히 죽음을 향해 조금씩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1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고, 가족들을 보면 측은함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았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드디어 병원에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고 뇌사자로 부터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에게 신장을 이식 받아 제2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루가 감사하고 매시간이 소중하며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변했다. 소중한 이를 잃는 절망적인 순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기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생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빛이 되어준 당신에게,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인 생명나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장기기증은 왜 필요 할까?"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내 신체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병으로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

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내 신체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는 것만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이식대기자는 해마다 약 2,000~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매일 약 6명에 달하고 있다. 혹여나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장기기증을 받아야 하는 대기자는 그야말로 그 간절한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 매일 매일을 피를 흘리는 절박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희망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다.

"1명의 기증자가 최대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생명 나눔의 고귀한 의미를 담아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여 기증자들을 기리고 있다.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풀며 올바른 정보를 교류하고, 또한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며, 장기기증을 실천하신 기증자 및 유가족분들께는 소중한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의미 깊은 날로 되새기고 있다. 그중 하나로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초록리본을 다는 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명보다 소중한 고귀한 것은 없다.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보편적이며 평범한 바람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아쉬움 가득한 소망일 수 있다. 모든 이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장기기증 대기자들에게는 크고 소중한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장기기증은 두렵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닌 내 가족, 나아가 내 이웃에게 꿈을 주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한다.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더불어 내 마음과 신체도 이 세상에 더 뜻 깊게 오래 남을 수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for 'Lawyer's New Stage'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featuring 'Free Lawyer Doctor' (무료 법률호닥터) service. Includes details on service content, target audien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ungcheongbuk-do Social Welfare Committee.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

Q) 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2020년 8월 10일에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인 2020년 9월 30일까지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여 임차인은 최대 4년의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 중에는 임차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만약 임대인 측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규정을 악용해 임대인이 허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의 보증금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한 이 경우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신문봉사단, 신문발행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은 지난 7월 30일 청주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신문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신문봉사단은 201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일 단장은 "매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충북사회복지신문이 변화하는 사회복지패러다임 소개 및 충북 도내 지역별 복지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앞으로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중부재단] 사회복지사 개인상담 지원사업/제3회 SAP "SPRING" 공모 안내
■ 사업목적: 정서적 회복력 지원-직무 스트레스 감소 소진예방 삶의 질 향상-심리·정서 지원 시스템 구축
■ 참여대상: SAP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복지사 25명(경력 2년 이상)
■ 지원금액: 약 25,000,000원(1인당 약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심리검사·워크샵-개인상담-후속교육
■ 접수기간: 2020.8.18.(화)~9.4.(금) 17시 마감
■ 접수방법: 중부재단 홈페이지(www.jbfoundation.or.kr)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서류발표: 2020.9.8.(화) 개별공지
■ 문의: 02-2191-7506,7552

2020.12.20.(일)
■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반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043) 267-5835, 285-5835
■ 참고: www.woorideul.or.kr

[여송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www.hopeon.or.kr/html/index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사피엔스4.0] 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사다리아저씨 모집안내
■ 신청자격: 만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모집인원: 연간 5명(연차 별 확대 예정)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협의 후 확정)
■ 신청방법: 홈페이지(sapiens.or.kr)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ocean@sapiens.or.kr) 제출
■ 문의: 사피엔스4.0(070-7005-607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문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www.bokji.net

[말알복지재단] 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말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사랑의열매&마중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자원 봉사자 모집

▶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45-7505
▶ 일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35-4288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45-4544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해광의료재단 충북병원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60-8200

▶ '너나들이' 동년배 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16-981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73-507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857-5960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84-0103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267-4590
▶ 이동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전문기관
활동기간: 8.1~9.30
전화번호: 043-731-368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대체인력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안내
※여름맞이 휴가, (보수)교육 집중지원 중입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포함 (현재 526개소) -노인장기요양법 적용대상시설은 지원제외
참여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지원일수 및 자세한 내용은 협의 홈페이지 참조
파견사유: 연(휴)가, 교육, 연수, 병가, 결원 등 ※여름휴가, 보수교육 집중지원
충북사회복지사업협회 / 충북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Tel. 043-232-2213, 2290 FAX. 043-232-4413 홈페이지 http://cbsw.or.kr

복/지/만/평
전염
이창신 www.bokmani.com
바이러스는 전염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전염됩니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입니다.